

보낸 자의 말은
한마디에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

작성일 : 2012. 06. 20.

작성자 : 정은별

(주님께 성자 주님과 시대 보낸 자에 대하여 더 온전히 깨닫고 2012년이 다하기 전에, 생각과 정신, 행실의 무지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간구할 때“보낸 자의 한마디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하시며 말씀해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태초에 우주 만물과 지구,
그 안의 생명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나 성자와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체들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하시매 어둠이 있었듯
하늘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약의 중심자와 사역체들의 행함과
역사의 행보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분담의 여부에 따라
시대 회복이 좌우되었다.

또한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육신 쓰고 행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하면 일어나 걷고
“마귀야. 물러가라.”하면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성자 구원주의 능력이다.
그러나 메시야는 육신 쓰고 나타나니
그의 말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의 곁에 있던 우측 강도 또한
나 성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하였다.

그러니 나 성자의 말이 크지 않냐.
인생의 화복, 영혼의 구원 문제가 좌우된다.
하물며 이 시대 나의 육신 된 보낸 자는 어떠하겠느냐.

근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온전한 완성급 구원 역사의 핵으로
이 시대 중심이 되어
영육 세계를 주름잡고 가고 있다.

나 성자는 육신 쓰고 역사하니
그 말의 힘과 능력이 어떠하겠느냐.
최고 천상 천국의 백마 탄 자다.
그러니 이 시대 중심자의 한마디가
놀랍도록 크고도 크다.

그와 편지로, 영으로 소통하는
1분 1초가 귀하고도 귀하다.
너희 구원 문제를 좌우한다.
그가 신부로서 조건을 세우고
신부 역사 1번 구원을 이룬 기준이며 표상이니
그의 말이 구원을 이룬다.
그의 한마디가 축복이며 권세이며 기업이다.

그러니 개인 편지 한마디가 너무나 크고
이 시대 핵심 교리는 심히 위대하며
매주 떨어지는 주일, 수요일, 잠언 말씀들은
웅장하고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러니 그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라.
그의 말은 곧 나 성자의 말이니라.
육신 쓴 성자니라.

선생은 나 성자를 지극히도 사모하여
마음과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몸 구석구석 온 몸온몸으로
나의 영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 보낸 자의 말에는
힘과 능력, 위력, 권세,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느니라.
심정과 순종으로 받으라.
깨닫고 대하라. 사랑한다.
오늘도 나의 말이 네 영혼 구원을
더 차원 있게 이루게 하느니라.

사랑은 곧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늘의 기업이니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 마음, 하늘 유업을 받으라. 일체다.
축복한다.
간절히 원하고 구원하고 행하는 자의 축복이라.

나는 너의 유일한 구원자 되는 성자니라.

(이 후, 이어서 기도할 때“성자의 능력이다.”하셨습니다.)

이제 성자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위대한 섭리사 신부 역사로의 도약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의 대상체로서 바라보는 역사가 아니라
서로 만나 연애하고 사귀고 사랑하며
직접 함께 인생 부대끼고 사는 때다.
나 성자가 선생 육신 쓰고, 영 쓰고
네 옆에서 완전히 역사하는 강권적인 때다.

완전 심정 일체, 부부 일체, 행동 일체의 때다.
나의 말을 듣고 온전히 깨닫고
나와 함께 하자. 함께하자.
네 선생과 함께 뛰자.
심정으로 뛰고, 영으로 뛰고, 외침으로 뛰고,
육신 인생으로 뛰어라. 날자!

차원성을 더욱 높이자!
나의 분체를 통한 시대 진리의 부활은
역사의 부활이며
동시에 시대 역사 신부들의 부활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해야
역사의 도약이다. 알겠느냐.

부족하다 말고
모두 나와 역사의 전선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함께 사는 것 아니냐.
나와 함께 살자.
평생을 함께하자.
평생토록 내가 책임질 너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사명이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자와 보낸 자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희망과 소망으로 행하면 비전 있다.
생각의 날개를 달고
희망의 역사 이루자. 사랑한다.

나는 너의 사랑 구원 역사 사랑 된 성자니라.